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 옥천군수 삼암공 권희인

삼암공(參巖公) 권희인(權希仁, 25세, 별장공파, 1558~1593)은 임진왜란의 영웅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장렬하게 순절한 삼암공의 묘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541 아미산(峨嵋山)에 위치한다. 삼암공이 배향되어 있는 충효사(忠孝祠)와 삼암정(參巖亭)은 아미산 맞은편 검무산(劍舞山) 아래에 자리한다.

삼암공은 아버지 어모장군(禦侮將軍) 언균(彦均)과 어머니 광산김씨(장사랑將仕郎 택신宅新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삼암공은 어릴 적부터 생김새가 범상치 않았고 매우 용맹하였다. 5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늘 밖에도 역시 만물이 있다고 하여 듣는 사람들이 그 뜻의 원대함에 놀라곤 했다. 삼암공은 글을 읽는 틈에 몸을 단련하기 위하여 저녁에 큰 돌 두 개를 집 뒤에 옮겨놓았다가 새벽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하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집 대들보에 박힌 못을 뽑을 수 있느냐고 하자 세치나 되는 못을 뽑아 다른 대들보에 박으니 대들보가 빠개져 버렸다. 모두들 대경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인다운 기상과 무인의 기질을 타고났다. 12살(1569)에는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성인과 다름없이 근심하며 경사(經史)를 연구하고 계으름을 피우지 않고 독서하면서 시문과 글을 지었다. 16살에 장가를 들었다. 19살에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이때 서애가 삼암공의 기상이 영웅호걸과 같아 위대하고 재주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활과 화살도 갖추었음을 보고 문무를 겸할 것을 권한다. 선비의 고장 안동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애의 문하를 드나들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삼암공을 띄 찍어서 무과 시험을 친유했다는 것은 삼암공이 한마디로 문무를 온전하게 갖춘 인재(文武全才)였기 때문이다. 탁월한 경세가인 스승 서애는 삼암공이 국가의 동량이 될 만한 인물임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삼암공에게 무과를 친유하면서 무과 급제가 임금을 섬기는 데 시초(權輿)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삼암공은 1579년 가을 22살의 나이에 스승이 명한 바대로 무과에 응시하여 1등으로 급제한다. 당시 무과는 28명을 선발하는 때이고 무과 합격 평균 나이가 34살이었던 점과 이순신도 3년 전 32살에 급제한 사실을 감안할 때 삼암공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 수 있다. 삼암공은 무과 급제 후 스승 서애 유성룡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다. 무과에 급제하여 기쁘게 금의환향하지만 혹시 ‘식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며, 그러나 무과 급제가 임금을 섬기는데 시초(權與)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삼암공의 이 한마디는 당시 조선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은 문치를 추구했다. 과거도 당연히 문과 위주였다. 무과는 문과에 비하면 그격과 비중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졌다. 무(武)와 무인(武人)과 장수(將帥)와 병법 등을 중시하지 않았다.

삼암공은 무과급제를 한 바로 다음해(1580년, 23살)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한다. 시묘살이 내내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영화롭게 모시지 못한 점을 한스럽게 생각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무과에 급제했지만 무과 급제가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정도였으니 삼암공은 무과 급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정자를 짓고 어느 길손과의 대화에서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점을 미루어 볼 때 삼암공은 여막살이를 마친 1583년부터 '벼슬에 나갈 생각을 끊고' 검무산(劍舞山, 332m) 아래에 정자를 짓고 10여년 동안 독서에 열중했던 그 공부는 바로 문과 급제를 위한 고보연수(고보연수)다.

그 지역사람들은 겸무산을 문학산(文學山)이라고 부른다. 외형상으로 보면 겸무산의 봉우리는 영락없이 문필봉이다. 그러나 겸무산은 암석으로 된 바위산이다. 그러니까 칼(劍)과 봇(文)을 품고 있는 산이 겸무산이자 문학산이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봇을 들고 있는 ‘칼을 찬 선비’의 모습이다. 삼암공이 이 산의 기운을 모아 이 산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듯이 겸무산이자 문학산은 문무를 결전한 삼암공을 낳았고 삼암공은 겸무산과 문학산을

삼암공은 삼암정을 지으면서 기문(記文)을 써서 삼암정기(參巖亭記)를 남겼다. 삼암정기 현판(懸板)은 삼암정에 걸려 있다. 삼암공은 지나가는 길손이 그윽한 풍경을 감상하면서 기(氣)를 취하려는가 하고 문자 '허허' 하면서 정자의 이름을 왜 삼암(參巖)으로 이름을 짓고 자신의 호(號)로 삼는지에 대해

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삼암정기에는 삼암의 웅대한 포부가 드러나 있다. 먼저 인간은 하늘과 땅 가운데 참여하여 삼재의 지위에 선다(인수천지지중人受天地之中 침위삼재參爲三才)는 의미를 밝힌다. 이는 중용 22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능진물지성能盡物之性 즉가이찬천지지화육則可以贊天地之化育 가이찬천지지화육可以贊天地之化育 즉가이여천지침의則可以與天



삼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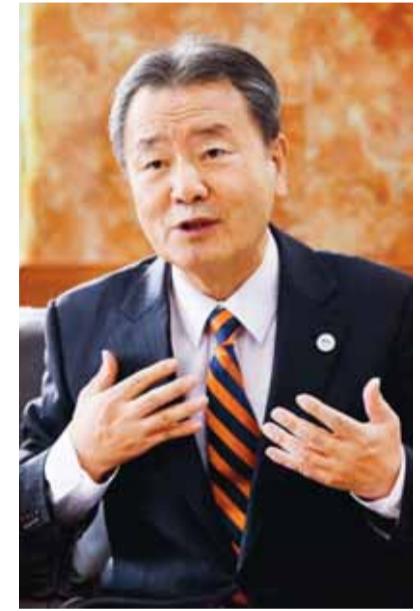
중요

한 방실房室이 있게 된지라, 날로 오르내리며 관람하는 나머지에 그 안에 들어가 잠도 자고 거처하며 음식을 먹고 살면서 매양 산과 더불어 면접面接하고 있다. 한 길손이 있어 지나가다 내게 희롱삼아 말하기를 ‘그대가 여기에 정자를 지었으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할 셈인가? 아침 이내와 저녁 구름의 사이에 가득 차는 그윽함을 감상感賞하며 그 지취志趣를 기르고, 꽃이 피고 잎이 지는 물색物色의 생태生態에서 뛰어난 기氣를 취하려는 것인가?’

한三韓의 한 구석에 저하여 헛되이 삼생三生[선생]

서애 류성룡 선생 10계명

권대봉 인천재능대 총장(복야공파 36세)



도감을 개설하고, 전쟁 중임에도 농사 지을 둔
전 관리에 힘을 쏟았다. 답은 현장에 있다.

6.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세상에 인재가 없다고 하지 마라. 서애 선생은 말직에 있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장군을 발탁하여 임금의 나라를

1. 외부의 식과는 짜워도 내부의 식과는 짜우지 마라. 서애 선생은 자신을 탄핵하고 죽이려 한 사람과도 다시 만나서 군사를 논의했다. 아강군과 권율 강군을 빌낙하여 위기의 나라를 구했다. 고정관념을 깨야 현자를 구할 수 있다.

1. 궁궐로 소송과 관문과 국역을 바꿔가며
지 마라. 서애 선생은 나라를 구하는 데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누구든 공을 세우면 등용했다.

라. 조선은 개국 아래 200년간 평화를 즐기다가 전쟁을 만났다. 평화는 강자의 마음에 달렸다. 신분과 학력으로 편가르면 나라가 결딴난다. 8. 공부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마라. 문

약자가 나라를 지킬 군대 없이 평화를 구걸하면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 되고 만다. 적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

○ 결단의 순간에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

인인 서애 선생은 병법을 공부해서 일선의 장수들에게 전술책을 지어 보냈다. 평생학습의 결과이다. 스스로 학습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마음을 틀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 결과

3. 결단의 순간에 방설이어서 마라. 서애 선생은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서 망명하려 할 때 왕의 안위보다 국가의 자존을 위해 단호하게 막았다. 나라가 결딴나는 익은 결다코 맘자

9. 마음을 놓아야하고 도덕아시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서애 선생은 아침에 임명하고 저녁에 해임할 정도로 변덕스러운 왕과 편색 함께 의해지마 한탄하지 않았다.

4. 옳은 일을 했다고 당장 인정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서애 선생은 임진왜란 때 전력을 다해 나라를 구했지만 전란이 끝나고 파직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장에 인정받지 못해 늘 그와 마음을 통하여 노력했다. 누구든 마음이 통하여 도와줄 것이다.

10. 반성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인생만 힘들다고 하지 마라. 서애 선생은 힘들다고 하지 않

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으므로 역사가 인정할 것이다.
5. 혁자는 므로고 탄사고로으로 정책을 만들고 성찰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징비록(懲毖錄)이라는 반성문을 썼다. 반성은 흔히가 아니라 미래 만들기다.

5. 현장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성책을 만들지 마라. 서애 선생은 전쟁터를 보고 나서 훈련은 후회가 아니라 미래 만들기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1년 2월 4일 31면 fn광장